

요나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구원

-복음으로 여는 요나-

요나 2:9, 디모데전서 2:4

정윤돈 목사님

* **욥2:9**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 **딤후2: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자격까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나라와 민족과 나의 직장과 전문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절대미션과 삶에서 실천하고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에 일본 나고야와 고치에 다녀왔다. 일본 고치는 저희 외할머니의 고향이다. 나고야 이종우 선교사님과 팀을 짜서 일본 목사님 세 분과 80살이 되시는 안수집사님과 캠프를 다녔다. 저희 할머니 생가 땅에 교회를 짓고 복지센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땅 주인과 공무원들을 만났다. 제가 선교사님께 앞으로 선교는 합법적인 법인을 통해 인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거기는 신학교도 국가 인정되도록 만들고 여학연수를 하는 사람들도 받고 있었다. 저는 우리가 훈련은 많이 받았는데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모델이 없어서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이종우 목사님은 대표적으로 나고야교회와 전국에 12개 지교회당을 짓고 학교와 병원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복음 안에 다 있음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다음 주에는 내일부터 마약센터에서 치유되어 치유 사역하는 제자들이 하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된다. 치유센터 당대의 모델이 될 것이다. 그래야 후대를 살릴 수 있다. 이 팀과도 교류하고 하나가 되어 복음적인 선교와 전도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일에 참사랑교회 성도와 후대들이 모델적인 역할을 담당해야겠다. 한국인들은 과거사 때문에 대부분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있다.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선교 밖에 없다.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야 함께 할 수 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다. 우리 민족에게 피해주는 나라 앗수르에 복음을 전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요나는 전도대상자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정하려 하였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다. 못나고 악하고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보니 모두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런 것이었다. 지금은 중독자를 보면 긍휼하게 보이고

오히려 훌륭하게 보인다. ‘술과 타락과 돈이 다가 아니구나’, ‘행복이 세상에 없구나’ 이미 결론내린 사람들이다. 그 분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한다. 나처럼 자신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분이다. 루터와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했다. 어떤 인간도 구원 얻을 만한 조금의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정죄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게 우리의 체질이다. 부족함이 바르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고 거룩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 내가 뛰어나서 전도하는 게 아니다. 저는 중독자에게 오히려 저의 부족한 점을 강조한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부족하지만 특히 더 부족한 나도 구원받았으니 당신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줘야 한다. 요나는 자기의 기준이 있었고 자기의 기준대로 전도현장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물고기 배속에서 요나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고백했다. 그게 요나서 2장 9절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다. 요나를 전도자로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전도자가 될 수 없고 제자를 키울 수 없다. 겸허한 마음으로 앉아서 복음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악시하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즉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전도할 때 현장에 누가 예비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계속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중에 예비된 사람이 있다.

오늘은 요나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이고 요나 아버지의 이름은 ‘아밋대인’데 그 뜻은 ‘진실 또는 나의 진실’이라는 의미이다. 왜 요나가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는 진실만 따라가면 안 된다. 진실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는 진실 너머의 영적 사실, 진리를 알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게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완전한 신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십자가는 단순하지 않다. 십자가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당신이 대신 죽으신 것이다. 정죄하면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한다. 그러나 내가 오히려 희생하고 대신 피를 흘리고 대신 희생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고 땀 맞고 조롱을 당하며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수치와 조롱을 참으셨다.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항상 목상해야 한다.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셨다는 말은 지옥을 경험하셨다는 말이다. 우리 때문에 지옥 고통까지 당하셨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시험에 빠질 수 있나.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다 살아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완전복음이 체질되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부터 만들면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다. 요나의 고향은 갈릴리지방 ‘가드해셀’이다. 이 지역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신 ‘나사렛’과 같은 지역이다. 요나가 활동했던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풍요로웠던 시절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 앗수르였고, 앗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다.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주는 것이다. 요나서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싫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나라나 민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리더를 양육해야 한다. 여러분 후대 속에서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야 한다.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다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야 세계를 살릴 수 있다. 복음, 선교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다.

1. 먼저 요나서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마다 요나의 여정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러나 이 이야기 안에 복음적인 내용도 많이 나온다.

(1) 1장에서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행을 꾸짖으라고 명령하신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한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다. 정반대로 간 것이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을까? 요나는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주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도망치던 중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 요나는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바다에 던져진다. 그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다. 2장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원을 간청한다. 많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나의 뜻도 달성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다. 3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신다.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금식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4장에서는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온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힘들 때는 전도하겠다고 했지만 육지로 나오니까 마음이 바뀐 것이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와 해결되었을 때의 마음이 다르다. 요나는 사흘 길이나 걸리는 큰 성 니느웨에서 하루만 전도하였다. 앞뒤 설명 없이 40일 후 멸망할 것이라는 말만 하며 전혀 성의 없이 전도하였다. 그리고 박성쿨 아래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멸망당할 것을 기대하고 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성쿨을 통하여 어찌 이러한 박성쿨도 소중한데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사람과 동물을 사랑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신다. 여기에 대하여 요나의 반응이 없이 요나서는 끝나고 있다. 결국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였지만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 선교에 동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요나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요나는 그 후 평생동안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니느웨에서 죽었다. 그 증거로 얼마 전 요나의 무덤이 그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박성쿨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 그렇다면 요나는 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했을까? 거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 하나인 아시리아의 중심지였다. 아시리아는 그 시대에 잔혹한 정복전쟁으로 악명이 높았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며 괴롭혔다. 복음을 전해서 강대국이 변화되어야 약한 나라들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 우리는 복음을 지도자들에게 전해야 한다. 남미는 지도자가 개종되었기 때문에 현재 90%가 천주교다. 반면 인도의 경우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였음에도 지도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도 약하다. 복음이 리더자에게 들어갔느냐 아니냐의 차이이다. 다윗과 요셉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도 이 언약을 붙잡고 후대들이 이 응답을 받기 원한다.

2. 니느웨로 가는 길과 다시스로 가는 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다.

(1) 먼저 다시스로 가는 길이다. ① 다시스는 창세기 3장으로 되돌아가는 길이다. 나 중심, 우리나라 중심, 내 이익 중심, 내 감정 중심, 내 경험 중심, 내 윤리도덕 중심이다. 이런 불신앙, 죄, 사탄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다. 선교의 마음이 아니다. ② 다시스로 가는 길은 창세기 6장 네피림의 길을 의미한다. 네피림, 돈 중심, 물질 중심이다.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안되자 요나서 4장 1절에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복음화가 안 된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요나서 4장 3절에는 심지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 니이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죽기를 원한다고 했다. 네피림체질이다. ③ 다시스로 가는 길은 창세기 11장의 길이다. 그 길은 나의 성공,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의미한다.

(2) 하나님의 자녀들은 니느웨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 앞에서도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잠시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불순종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랑으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끝날 때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요나서 4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요나도 복음을 알았던 것 같다. 그래서 변화시켜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다시스로 가는 체질이 니느웨로 가는 체질 되었다.

3. 그렇다면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는 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 니느웨로 가는 길은 사도행전 1장 1절의 길이다. 즉 그리스도가 가진 그 길을 의미한다.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길,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내가 대신 죽는 길이다.

(2) 니느웨로 가는 길은 사도행전 1장 3절의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그 길을 의미한다. 평화를 이루고 살함을 이루고 다른 사람과 가정과 교회도 살리는 Peace Maker가 되는 것이다. 어느 교회와 조직을 가든 문제가 있다. 누구나 다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살함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다 못하기 때문이다. 조금만 언약을 붙잡으면 빛과 소금이 된다.

(3) 니느웨로 가는 길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세계복음화의 길이며 다민족복음화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은 7.7.7기도 즉 7만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문 중에서 7만대를 보겠다.

① 사실 정확히는 성삼위가 아니라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 ②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보좌에 계시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천군천사를 통해 지켜주신다. ③ 그래야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킬 수 있다. ④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필요하다. 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닌 공중의 권세잡은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항상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성령충만, 말씀충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속게 된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생각을 집어넣는다. 문제 앞에서 말씀이 항상 넘쳐서 떠올라야 한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 ⑥ 언약 안에서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도전할 실천할 것이 나온다. 그게 CVDIP다. ⑦ 그걸 구체적으로 가는 곳마다 금도일시대에 세 가지 뜻을 만드는 것이다. 그게 RUTC와 문화센터다. 이 사역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언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어 원수된 사람과 나라까지 살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천명, 소명,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복음의 체질로 변화되어 어디를 가든지 가정, 직장, 산업,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군대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요나를 뛰어넘어 참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